기쁨이 없는 십오 초

(사무엘하 1:1~27)

11.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13.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14.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5.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16.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기쁨이 없는 십오 초>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기쁨이 없는 십오 초’
심보선 시인의 시집이 “슬픔이 없는 십오 초”인데 이 시집에 실린 시 중에 같은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앞부분과 중간 부분을 읊어 봅니다.

아득한 고층 아파트 위
태양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낮달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치욕에 관한 한 세상은 멸망한 지 오래다
가끔 슬픔 없이 십오 초 정도가 지난다
…
나는 길 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다
남자가 울면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
궁극적으로 넘어질 운명의 인간이다

현기증이 만발하는 머릿속 꿈동산
이제 막 슬픔 없이 십오 초 정도가 지났다
…

작가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볼 때에 23시간 59분 45초가 슬픕니다. 그 슬픔을 '아득한 고층 아파트 위 / 태양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 낮달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고 노래하는데 태양이 뜸으로서 인간의 삶은 활동적으로 이어져나가는데, 삶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태양이 슬퍼서 가슴을 쥐어뜯고 있습니다. 달이 떠오르면 태양이 물러나야 하는데 낮달이 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활동하는 삶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달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무슨 행동을 해도 결국 죽음에 밀려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치욕에 관한 한 세상은 멸망한지 오래다'라는 말은 죽음에 의해서 삶이 밀려나는 것뿐 아니라 자부심을 가질만한 대단한 꿈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했지만 좌절과 실패를 맛봅니다. 모욕적인 결실을 받아들고 사는 것의 실패와 좌절, 열등감과 패배감은 맞서 싸울 것이 아닌데 이미 내 삶의 세계에서 전체 내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통 슬픈데 시인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가끔 슬픔 없이 십오 초가 지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오 초라도 슬픔을 잊을 수 있는 이유는 슬픔으로 가득 찬 상황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남자가 궁극적으로 넘어질 운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는 동안은 자전거가 달리지만 결국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내리면 자전거는 쓰러질 것입니다. 지금은 살아있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자전거를 내리듯이 떠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인 줄 알고 대통령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란에 가서 대통령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임기가 지나고 나면 다 묻히고 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자전거에서 내리면 자전거는 쓰러지고 활동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오 초라도 슬픔이 없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시인은 시인입니다. 그렇게 슬픔으로 가득 찬 실제 상황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십오 초만이라도 슬프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현기증이 만발하는 머릿속 꿈동산'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현기증'은 실제의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실제 상황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져 나와서 머릿속 꿈속에 머무는 십오 초 동안만 슬프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압박을 가해 오기 때문에 이 삶의 상황을 잊어버리고 있는 십오 초 동안에만 슬프지 않은 것이지요.

이 시는 허무와 공허로 텅 빈 한 남자의 슬픔을 노래하는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패러디해서 말해보자면 항상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지혜로운 말이고 숨겨진 사실을 보고 있는 것이므로 사실 비관론자나 낙관론자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낙관론자'는 어리석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뿐이므로 이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비관론만 성립

하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23시간 59분 45초를 슬퍼할 수 있는 자에게만 십자가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일컬어지는 신앙적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극도의 슬픔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23시간 59분 45초를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온 슬픔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즉 항상 기뻐하는 자가 슬퍼해야 할 참 슬픔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용병으로 이스라엘 군에 참여하고 있던 아말렉 소년이 패전해서 도망 나와 다윗에게 당도하게 됩니다. 패전 소식을 전하고 사울 왕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은 이 아말렉 소년에게 어떻게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아느냐고 묻자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의 모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칼을 거꾸로 꽂고 그 위에 엎드러져 자결을 했는데, 아말렉 소년은 사울이 패색이 짙어지자 더 이상 살 기력도 없고 창에 기대 서있는데 나둬 봐야 블레셋의 군대에 죽을 것이므로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슬픔에 젖은 다윗이 이 소년을 사형에 처하는데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외국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가르침과 원리를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을 했던 이유는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큰 칭찬과 상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투구와 팔찌를 가져와서 상 받으리라 생각했는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이 아말렉 용병의 계산이 우리의 계산과도 맞아떨어집니다.
사울과 다윗은 천적관계였으므로 당연히 요나단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하지만 다윗이 아말렉 소년을 죽이는 이유는 사울 왕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가를 지어서 읊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에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분명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 다윗의 슬픔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입으신 손해에 대한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당하신 상실에 대한 슬픔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선민의 삶의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이유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기쁨의 이유가 되므로 이런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한

다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보선 시인의 말대로 슬픔이 없는 십오 초를 말할 정도로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는 것이 정직하게 세상을 보는 사람의 노래의 내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의 이유가 하늘 위, 태양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 아래 있는 것이 슬픔이고 태양 위의 하나님을 기쁨의 이유로 삼습니다.
이렇듯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부가될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또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들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사랑해 볼 수 있기 위한 기회를 얻은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져서 죽은 것을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방나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었다는 것은 사울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들을 기회로 삼고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단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는 자신과 추종자들의 가족을 사로잡고 재산을 약탈해 간 아말렉을 추격해서 무찌르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삼일 째에 이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이 추격 직전에 처음으로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가족과 재산이 사라지고 추종자들 600명은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급함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위치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세상적 상실과 추종자들의 변심에 사로잡힌 충격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더 큰 충격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자 가족을 잃은 것은 충격이 아닐 정도로 이 세상 어떤 일에도 마음이 묶이지 않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선민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생명을 잃음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된 계획과 기가 막히는 뜻이 상실되었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약탈당하고 포로로 잡힌 가족들과 재산을 빼앗긴 슬픔에 대해 죽고 하나님만을 사랑했을 때에 그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표현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임을 경험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장갑 삼으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셨을 텐데 그것이 중단 되고, 또한 아버지와 운명을 같이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야 될 몸의 길을 아버지와 묶고 비참함에 자신을 내어준 요나단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아버지의 운명에 의해서 중단되고 많은 이스라엘의 선민들이 그렇게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사울이 왕위보다도 하나님만을 더 먼저 사랑했더라면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진멸함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 기뻐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들이 다 소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울이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시면서 인생채찍과 막대기로 가르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지언정 사울과 같은 죽음을 있게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다윗이 이심전심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철천지원수였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의 증거인 투구와 팔찌를 가져가면 크게 상을 받을 것으로 여겼던 아말렉 소년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아말렉 용병이 계산하는 세계와 다윗의 세계는 다른 가치 체계의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것인데 슬픔과 기쁨의 이유가 달랐습니다. 다윗은 가족과 재산을 약탈당하고서도 용기를 얻은 것은 슬픔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기쁨의 이유로 찾았습니다. 심보선 시인은 세상적 경험에 의해서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을 깨달은 똑똑하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선민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시기로 하신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세상 것을 상실한 것으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선민이 이 세상에서 슬퍼할 이유는 단 하나인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기회가 상실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업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내 자식이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근심인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슬픔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들에게 기쁨 없는 십오 초는, 그렇게 사랑하여 기뻐하는 그 하나님에게 이 땅에서 나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 이상의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세상 모든 소중한 것들에 대해 죽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기회가 되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